

찬탄·경배하는 그 마음도 '사리'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부처님과 10대 제자·불교 성인들' 사리 전시회 현장



석가모니부처님 사리를 진경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이 진지하지만 하다.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깨끗하게 보존된 사리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물관 1층에서 성철 스님의 법골을 진경한 불자들이 2층에 전시된 부처님과 10대 제자, 그리고 불교 성인들의 사리를 진경하느라 여념이 없다. 진옥 스님 등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20여명의 스님들도 사리가 진열돼 있는 테이블 중앙에 위치한 부처님에게 관음의식을 한 후 합장을 한 채 사리를 진경했다. 마곡사에서 왔다는 한 스님과 화순 쌍봉사에서 온 법진 스님은 관계자들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에 대해 전시회 관계자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곁에서 덩달아 설명을 듣는 불자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흰옥·작은 돌·갈색 실 모양 등을 한 다섯 종류의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 1mm 크기의 아주 작은 가섭불 사리, 좁쌀만한 크기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난존자와 목건련 존자의 사리, 미세한 고운 모래 같은 오백나한 사리. 이런 사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또 있을까.



전시되고 있는 성철 스님의 법골과 영정. 스님의 법골은 2010년 완성된 쿠시나카르 미륵부처님 심장에 세계 성인들의 사리 1000과와 함께 봉안된다.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전시장인 2층 박물관에서 관음을 시작으로 한바퀴 돌며 사리를 진경한 불자들이 입구에 앉아 있는 스님을 향해 나란히 줄을 선다. 한국 사리 전시회 총책임자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의 웨랍 스님이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종 모양의 사리함을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한 불자에게 머리와 손바닥을 차례로 짚으며 티베트어로 축원을 해주는 진언을 한다. 흔히 말하는 마정수기 의식이다. "대지비를 이루어서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던 나쁜 업을 지었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의 앞길에 나날이 발전하고 자비심이 더 커지길 기원합니다."

마정수기를 받고 난 이승훈(63·광주 송정동)씨에게 티베트 스님이 축원한 내용을 아는 지 물었다. 멋쩍게 웃으며 모른다고 답한 이씨는 "사리는 공덕의 결정체이며, 사리 진경을 하면서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발원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진옥 스님의 축사를 되새기면서 "사리를 진경하고 마정수기 의식을 치르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발원을 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라는 정현경(42·전남 화순읍)씨는 "호기심으로 전시회에 왔는데, 불교에 이런 신앙대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사리 전시회 총책임자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의 웨랍 스님은 이번 사리 전시회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사리 진경을 통해 현신하는 마음과 신앙심을 기르고, 부처님과의 영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의 법골을 전시회에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골 그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수행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사리의 법골을 진경한 불자들은 모두가 그 뜻을 깊이 새겼다.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부처님과 10대 제자 등 불교성인들의 사리처럼 불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빛'을 가꿔가고 있었다.

티벳박물관(061)852-1755
homepy.buddhania.com/homepy/relicshow
보성 대원사 / 글=한영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 불자가 부처님 사리를 향해 합장예배하고 있다.



관람자들이 티베트스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고 있다.



1 석가모니부처님 2 사리불 3 아난 4 밀라레빠의 사리들. 모두 라마 린포체 제자인 우원 위엔이 제공한 것.

세계 최대 미륵불 심장 사리 1000과... 성철 스님 법골도 봉안키로 관음-진경-마정수기 진행, "신심 기를 좋은 기회" ... 15일까지

이 이어지면서 한국전시의 막이 올랐다. 오후 1시 마침내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공식행사가 시작됐다. 개막식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한국전시회를 책임지고 있는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 여수 석전사 주지 진옥 스님,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 광주영산재 회장 해명 스님,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전남대 손광은 교수, 우즈베키스탄 입달라 前 교육부장관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사리전시회는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가 세계 최대의 불교성자 건립을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 마이트레야 프로젝트는 부처님 열반지자 불교 4대 성지중 한 곳인 인도 쿠시나카르에 152m 높이의 세계 최대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교유물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시청각 극장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혜와 자비 상징, 진경하면 번뇌 소멸"

이 자리에서 보성 스님은 축하법문을 통해 "부처님 사리를 진경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짓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이나 다름없다"며 "사리를 진경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사리를 대한다면 사리를 진경하면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가 자라게 될 것"이라며 표현은 달랐지만 보성 스님 법문처럼 사리진경이 궁극이 아니라 사리진경을 통해 부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런 기회 또 있을까?

이날 오전 사리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동생과 함께 곧바로 전시회에 달려온 조화자 보살(52·서울 송파동)은 박물관 2층에 전시된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의 사리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들 김상우(31)씨는 "사리 전시회는 거의 다 다녔는데, 이렇게 뜻 깊은 전시회는 처음"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4월 27일 오후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 박물관. 박물관 1층 전시실 앞 테이블에 놓인 작은 유리함 사이로 하얀 연꽃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종으로 만들어진 손바닥 크기의 연꽃들은 모두 가족 이름과 함께 소망과 발원을 담고 있다.

연꽃 가운데 작은 촛불을 올려놓은 불자들은 저마다 합장을 하고 유리함을 향해 예를 올린다. 유리함에는 5cm 크기에 흰색을 띤 성철 스님 법골(法骨)이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부처님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불교 성인들의 사리와 성철 스님의 법골을 볼 수 있는 '미륵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 순례 전시회'는 그렇게 성철 스님을 다시 진경하려는 불자들의 발걸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氣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심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아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아들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쓰림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쓰림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은행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칙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타덕극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정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